광주 대표 퍼포머들 발트3국에 '예술혼' 알리다

김광철·박경화씨 에스토니아 머물며 활동 펼쳐
파르누에서 20일까지 레지던시 프로젝트 실행

'예술씨앗 96-07'·'나의 처절한 낙원 #2' 발표
페인팅·일기 전시…한국음식 워크샵 등 '호응'

광주 대표 퍼포머들인 김광철씨와 박경화씨가 에스토니아 파르누에서 이달 20일까지 머물며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사진은 김광철 작가의 퍼포먼스와 박경화 작가의 퍼포먼스 장면.

광주를 대표하는 퍼포머들이 유럽에서도 낯선 발트(3국)의 한 나라에 머무르며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의 퍼포머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외연이 두텁지 못하다. 일반 회화 등 입체미술에 비해 향유층 역시 아직 인식은 폭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평생 퍼포먼스를 펼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퍼포머 또한 그 사례를 매우 찾기 어렵다. 지역을 연고로 퍼포머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예술장르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를 대표하는 퍼포머 김광철씨(글로벌메이킹아트네트워크 대표)와 동료로 등단한 소설가이지만 퍼포먼스계를 떠나지 않고 뚝심있게 활동을 펼쳐온 박경화씨가 에스토니아에 머무르며 광주 퍼포먼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것.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에스토니아에 들어와 남쪽 발틱해에 위치한 제2의 도시 파르누(Parnu)에서 이달 20일까지 3개월 간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 레지던시는 2024년 중국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논그라타' 팀을 만났고, 논그라타의 창립멤버이자 그룹의 리더인 알 팔드록(Al Paldrok)과 구체적 논의를 통해 성사됐다.

특히 파르누에서는 한국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장기 레지던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이곳에서 두 작가는 워크샵과 국제행사 등에 참여했으며 결과발표전을 갖는 것 외에도 한글과 한국음식, 음악 등의 소개로 현지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친밀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와 한국의 예술교류를 뛰어 넘어 현지인들과의 탄탄한 우정과 협업을 통해 민간외교 면에서도 손색없는 교류를 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김광철 퍼포머는 파르누 독립광장에서 열린 Diversr Universe에서 '예술씨앗 96-07'를 발표했고, 파르누시립도서관에서의 레지던시 결과발표로서 '욕망상자' 시리즈인 5번째 페인팅 전시를 연데 이어 Loovlinnak 레지던시 공간에서 퍼포먼스와 드로잉이 결합된 워크샵을 성황리 진행했다.

이어 박경화 퍼포머는 파르누 독립광장의 국제행사에서 퍼포먼스 작품 '나의 처절한 낙원 #2'를 발표했고, 레지던시 결과 발표로서 '파르누 다이어리'(Parnu Diary)라는 제목으로 파르누에서 느낀 단상들을 글로 표현, 친필로 한글과 영문을 써서 시립도서관에서 전시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박 퍼포머는 또한 김치와 김밥, 미역국 등 한국음식을 만들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살레마 섬과 레지던시 공간에서 삼계탕과 오이소박이 등 다수의 한국음식 워크샵을 가져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유도해냈다.

현지에서 김광철 퍼포머의 작품 '예술씨앗'에 대해 마스터다운 퍼포먼스였다는 평을, 박경화 퍼포머의 작품 '나의 처절한 낙원 #2'에 대해 아름답고 강렬한 시적인 퍼포먼스라는 평을 각각 받았다.

김 퍼포머의 '예술씨앗'은 2018년 체코 프라하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새로운 퍼포먼스 아트 프로젝트로 현재 99번에서 93번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에스토니아 파르누에서는 96-07번을 통해 자연과 인간, 문명과 생명이라는 상대성을 대비시켜 공존하며 대립되고 상실되는 세계관을 표현했다. 아울러 페인팅 전시는 현장성과 현지 여건을 고려, 흑백이 주축이 된 추상적인 작품 23점이 출품됐다. 강렬하고 심상적인 작품들로 뛰어나고 인상적인 작품들이라는 평이다.

또 박 퍼포머의 '나의 처절한 낙원 #2'는 최근 대표작 중 하나로 야외 버전화시킨 작품으로, 우산과 테이블 등 미니멀한 소품들로 구성됐지만 다양한 표현성과 진행을 통해 깊은 감동을 현지 관객들로부터 이끌어냈다. 소통과 단절, 공동체와 고립이 주제로 인간이 갖는 안정과 불안을 공감하게 했으며, 한글과 영어로 쓴 파르누 일기 전시 또한 현지인들의 한글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이번 파르누에서의 작품활동을 상기하며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광철 퍼포머는 2007년부터 구축된 국제적인 활동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외 예술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에스토니아에 이어 중국 송좡(2025) 및 시안(2026), 인도네시아 발리 (2026)등의 레지던시에 참가할 예정으로, 전세계 국가에서 초대되는 대로 3개월간 체류하며 퍼포먼스와 페인팅 전시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박경화 퍼포머는 에스토니아 파르누에서 지낸 레지던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과 아트투어 에세이를 구상, 출간할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이어온 국제적인 아트투어를 김광철 작가과 함께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상품 출시

국립亞전당재단, 상징성 담은 디자인 개발
공예 작가 협업 '백자 찻잔 티 세트'도 선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전당의 상징성을 담은 문화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전당의 주요 색상과 건축 요소, 도형, 표어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했다. 디자인 스튜디오 '모스'(mohs)와의 협업으로 진행한 이번 디자인은 전당 대표 색상인 푸른색과 먹색을 기반으로 건축물을 상징한 도형과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문구를 토대로 10주년을 맞이한 전당의 의미와 철학을 담았다.

상품은 천 가방과 텀블러, 컵 받침 등 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해 일상에서 전당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텀블러 제작에는 일본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 '모슈'(mosh!)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전당 상징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판 텀블러 상품은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카페, 진정성'과 함께 출시한 '시간을 담은 아시아의 향' 차 세트는 공예 작가와의 협업으로 고급형인 '백자 찻잔 티 세트'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 상품은 우리나라 백자의 미감을 엿볼 수 있는 김진완 도예가의 백자 찻잔 세트를 함께 구성해 아시아 차 세트의 소장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10주년 기념상품은 전당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 상품으로,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감각적인 모습을 반영했다"며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전당의 가치를 일상에 담아내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당 10주년 기념 상품은 문화상품점 '들락'(DLAC)과 들락 누리집(https://accdlacshop.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북구문화센터, 창작뮤지컬 '페이지나' 무대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22~23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서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기백)은 북구문화센터 특별기획 창작뮤지컬 '페이지나'를 22일과 23일 등 두 차례 무대에 올린다. 이번 뮤지컬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 공연이다.

'페이지나'는 자극적인 소재를 찾던 소설 작가 비비안이 우연히 찾은 엄마가 쓰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등장인물 '올리비아'가 돼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창작뮤지컬이다.

악역이 된 비비안은 소설의 내용대로 주인공인 '릴리안'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새 소설 속 인물들을 응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갈등에 빠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비비안은 엄마의 소설이 거기까지 쓰여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창작뮤지컬 '페이지나' 공연은 22일 오후 7시 30분, 23일 오후 3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105분간 진행된다. 입장료는 7세 이상 관람가로 전석 1만원이며, 티켓링크와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